



# 광남일보



광주은행 '특목자문단' 현장소통 간담회 6 | 나주, 영산포에 K-푸드 글로벌상권 조성 8 | 순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도약 9 | 광주체고 여서영, 대통령기 배드민턴 대회 '금' 12

조간 제786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윤력 5월 29일)

새정부 추경에 광주·전남 주요 현안 반영

## AX실증랩 조성·호남고속철 2단계 '탄력'

시, 5건 786억원 확보  
인공지능 2단계 '속도'

도, 14건 6025억 반영  
SOC 등 지역경제 회복



“쿨링포그 시원해요” 광주·전남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인 23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폭염에 대비해 산책로에 설치한 쿨링포그(물안개분사장치) 구간을 걸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새 정부 추경예산에 광주·전남 발전의 마중물이 될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모빌리티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랩 조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 등이 반영됐고, 전남도는 호남고속철 2단계 등 SOC 분야 예산이 확보돼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안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광주시 주요 사업은 5건 786억원이다.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성 2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11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715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R&D) 1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30억원 등이다.

특히 모빌리티 AX실증랩은 1차 추경에 확보된 인공지능(AI) 전략사업 예산 153억원에 더해 추가 반영,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장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도 강화됐다.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초격차 스타트업 등 R&D 및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가 반영돼 지역 혁신기업 성장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목적에 따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715억원이 편성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지역 건설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철도 1호선 LTE-R 통합무선망 사업도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서 11억

원이 추가 확보돼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광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국비 33억6000만원도 추가 확보됐다.

광주시는 새정부의 베풀어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는 목표에 맞춰 인공지능(AI), 지역화폐, 도시철도 건설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에 집중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0일 지역 국회의원 전체와 간담회를

열어 국정과제 반영 및 추경 편성의 국회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또 '대선공약 서울상황실'과 '골목경제 상황실'을 구성, 대선공약의 국정과제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새정부 추경안에 14개 사업 국비 6025억원이 반영돼 지역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2면에 계속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이 대통령, 11개부처 장관 인사 단행



### 국방 안규백·외교 조현·통일 정동영

국방장관 첫 민간인 출신 발탁  
여수출신 김성한 환경부장관

호남 출신 4명 지명...전북 3명  
송미령 농림부장관 유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외교부 장관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고 이날 강연식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내정됐다.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각각 낙점했다.

고용부 장관에는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발탁했고, 농식품부 장관은 송미령 현 장관을 유임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내정했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임명했다.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호남 출신은 모두 4명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이다.

이 가운데 김성한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장관 후보자는 모두 전북 출신이다. 조현 후보자와 정동영 후보자는 전주교고를 나왔고, 안규백 후보자는 광주서석고를 졸업했다.

유일한 전남 출신 김 후보자는 여수 출생이긴 하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상경해 서울에서 성장했다.

배경훈 후보자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AI 3대 강국을 위해 어렵게 모신 분으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기술정책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2차관을 거치며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모두 풍부하다"며 "통상 문제에 밝은 것으로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로, 산업 재해 축소 및 노란봉투법 개정이나 주 4.5일제 도입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한성숙 후보자에 대해 "라인, 네이버 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시행...국토부, 연구용역 착수

### 광주·전남 피해지역 실질 지원 본격화

정부가 12·29 여객기참사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를 회복할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의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

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말 참사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경제적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과 항공기 취급 업체, 지역 관광업체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로 경영난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관계부처와 광주·전남 지자체,

전문가와 협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분석,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향후 6개월간 피해지역의 경제현황과 참사로 인한 피해를 엄중별로 정밀 분석하고, 간담회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업종별 실질 효과가 기대되는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과 세부 사업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 높은 주목도 +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